

법원행정처, “안경환 판결문 8분만에 제공”

노회찬 원내대표, “개인정보 그대로 공개… 위법소지·사전 합의 의심도… 언론 제공된 경위도 규명해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0일 법원행정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판결문을 8분 만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행정처가 안 전 후보자와 혼인무효소송 상대방 여성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판결문을 단 8분 만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탈법’ 제출했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A의원과 B의원이 각각 6월15일 오후 5시33분께와 오후 5시35분께 국회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판결문을 요청했다”며 “법원행정처는 최초 요청 시간인 오후 5시33분으로부터 단 8분이 지난 오후 5시41분에 B의원에게 판결문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A의원은 오후 5시45분께 판결문을 받았다.

그는 이어 “이 판결문이 안 전 후보자와 상대방 여성의 실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은 사본이었다”며 “관계자에 따르면 판결문 제출은 이인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요청한지 8분 만에 제공된 것은 ‘한국신기록’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모든 판결문은 비실명화 처리돼서 공개한다는 원칙이 깨졌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또 “A의원실이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판결문을 요청하고 국회 담당 실무관이 이를 기획재2심의관에 전달하고 기획재2심의관이 기획조정실장과 판결문 제출 여부를 상의한 뒤 그 결과를 다시 국회 담당 실무관에게 전달하여 실무관이 보좌관에게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판결문을 송부하기까지 아무리 길게 잡아도 단 8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위법소지에 대해 전혀 고민을 하지 않았거나 사전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노 원내대표는 “안 후보자는 당시 인사



밝게 웃는 의원식-강경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청문회의 대상인 공인이었지만 상대방 여성은 국회에 개인정보가 공개될 이유가 전혀 없는 일반인”이라며 “일반인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판결문을 송부할 경우 담당 법원 공무원 등은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면책 받지 못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따라 가

사소송 판결문도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비실명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법원 공무원 등은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면책 받지 못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가 자유한국

당 의원들에게 판결문을 제공한 지 3시간도 지나지 않은 6월15일 오후 8시50분께 모 매체가 안경환 교수의 인적사항과 상대방 여성의 주소가 공개된 판결문을 보도했다”며 “법원행정처의 8분 제출 뿐만 아니라, 언론매체 보도 경위까지 상세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

김광수, ‘건강보험공단 역할 재정립 방안’ 토론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건강보험공단 역할 재정립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에 관하여 국민을 대리하는 보험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 기준 재정흑자는 20조 원을 넘어섰다”며,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5년 63.4%에 불과해 80%인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 채 담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급여지급과 공급자에 대한 통제, 의료비 증가 억제, 가입자 및 재정 보호의 기능을 취약해 이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에 오는 토론회가 건강보험의 실질적인 보장성 확대를 위한 올바른 건강보험 거버넌스 구조와 역할을 재정립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사회보험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국민들이 공평하고 안정적인 사회보험의 울타리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우석균 보건외과연한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신영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국민건강보험의 역사적 역할과 전망’을,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가 ‘건강보험 개혁 과제와 보험자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황선우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제갈현숙 민주노동 정책연구원장,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국민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 방안’에 대하여 집중 토론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의료민영화저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공동주최하였으며, 관련 기관 관계자 약 200여 명이 참석해 국민건강보험제도 분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김진성 기자

文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 문미옥 국가안보실 2차장 남관표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차관급인 과학기술보좌관에 문미옥(49)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가안보실 2차장에 남관표(60) 주 스웨덴 대사를 각각 임명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은 기초과학 분야와 과학정책 분야를 두루 거친 여성과학기술인 출신의 비례 의원으로 과학인구 미래를 개척할 책임자”라며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외교안보 업무에 정통한 전략 정책 기획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새 정부 국가안보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책임자”라고 소개했다.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은 경남 산청 출신으로 포항공대 학·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연세대 물리학과 연구교수, 이화여대 WISE거점센터 연구교수,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획정책실장을 지냈다.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와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정치학 석사를 받았다. 외무고시 12회로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국장,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조정관, 외교부 주영기리대한국대사관 대사를 거쳐 현재 외교부 주스웨덴왕국대한국대사관 대사다. /뉴스



문미옥 보좌관



남관표 2차장

문재인 대통령, 워비어 가족에게 조건 발송

“인권존중 않는 北 개탄스러워… 억류 한국·미국인 속히 송환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난 미국인 청년 오토 워비어가 사망한 것에 대해 “북한이 인류보편적 규범과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은 아직도 우리 국민과 미국 시민들을 억류하고 있는데 속히 이들을 가족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

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어제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도 무엇보다 북한이 워비어 군의 상태가 나빠진 즉시 가족에 사실 알리고 최선의 치료를 받게 해야 할 인도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워비어 가족에게 사망

소식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조의와 위로의 내용을 담은 조건을 발송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워비어 사건을 청와대에서 발표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에 대해 “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심이라는 표현을 했다”며 “그런 마음을 미국 국민과 가족들에게 보내드리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워비어 사망이 한미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정상회담 관련 한 논의의 주제는 이미 조율이 된 것”이라며 “이런 상황 발생과 이미 결정된 정상회담 의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것에 대한 위로를 표하는 과정에서 대북정책에 영향이 있다 없다 까지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문 대통령이 억류된 우리 국민의 송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논의할 수도 있고, 남북 대화체널을 복원하는 것은 별도로 추진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뉴스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밤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울영상

백두대간 역사관

3D 애니메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씨름영상관